

◆며느리권씨 일전 14-1

정일당 강지덕의 어머니 권씨 (시중공파 31세, 청강거사 권서옹의 딸, 玉所 權燮의 外증손녀)

여종군자의 말씀

- 학문을 연구하는 선비의 진지한 삶을 살았던 이…덕행, 학문으로는 어찌 군자라고 아니 하겠는가?… 시와 학문, 문장과 도학 모든 면에서 훌륭했던 어른.. 지극히 어질고, 후하고, 정성되어 나에겐 스승도 되고… 당신은 곧고, 맑고, 순일했구려. 당신이 이룩한 학문 또한 순수하고 거룩했어요. -

이는 조선조 말기 순조 32년 어느 선비(?)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의 글들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그 선비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이다. 그녀의 이름은 강지덕(姜至德)이며 당호는 정일당(靜一堂, 1772-1832)이다. 그녀는 제천출신으로 조선 4대 문장가 육소 권섭의 손자의 외손녀이다. 그녀는 여느 여성 문인들처럼 애정시나 쓰고 꽃 그림이나 그리던 것과는 장르가 다른 인물이다.

“이제 공부하다 의심나는 것을 뉘에게 물어보고, 내가 실수하면 누가 타일려줄 것인가?”

이것은 스승을 잃은 제자의 한탄이 아니고 아내 ‘정일당’을 잃은 남편 태제(坦齋) 윤광연(尹光演)이 지금 서울역 뒤 중립동(築嶺洞)에서 애통해하면서 한 말이다. 당시 부인은 61세 윤광현은 55세였다. 그는 그 뒤 자신의 이름으로 부인이 대필한 문장도 원위치 시키고 문집을 천신만고 끝에 만드는데 이거야 ‘정일당유고(靜一堂遺稿)’이다. 진정한 외조(外助)의 선구자임에 틀림이 없다. 30여권의 저작이 다 사라지고 그나마 남편의 노력으로 이 정도라도 남아 있음은 온전히 그의 공로이다.

“(남4녀의 자식 모두)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은 자기 분수에 정해져 있으니 근심할 바가 못 됩니다.”

어느 道學者の 말인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건지 매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정일당이 남편 윤광현과 사이에 아홉자식 낳고 어릴 때 모두 없었는데 남편이 이를 애통해 하자 말한 것이다. 물론 그녀도 어머니로서 여섯딸된 딸의 죽음을 ‘방긋 웃던 그 모습이 눈물 속에 어른 거리니…’라면서 아프게 노래한 가사 있다.

나이 서른에야 공부를 시작하니(三十始課讀)
학문의 방향을 종잡을 수 없네(於學迷西東)
이제부터라도 모름지기 노력하면(及今須努力)
옛 성인과 거의 같아지리라(庶幾古人同)

어떤 선비의 각오 같지만, 역시 정일당 그녀의 시이다. 당시 서른이면 거의 인생 후반기로 가는 판인데 부인의 몸으로 이런 시로서 학문에 매진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은 대단하다. 물론 이는 남편을 과거 공부 시키거나 학자로 만들어 보려는 부인의 마음이 남편에게 통하여 학문에 매진하게 하려는 의도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조선 영·정조 시대의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1721~1793)의 말 “내 비록 여자의 몸이나 하늘로부터 받은 성품이야 애초 남녀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를 인용하며 정신적 사제지간으로 자임하면서 여성적인 시문(詩文)보다 성리학이나 주역 같은 공부가 주된 것이었다. 당



강정일당 초상

시 그녀는 약간의 한문 지식은 있었으나 남편 뒷바지를 바느질로 등으로 하면서 서울살이를 이어가는 중에 견외지학(肩外之學, 어깨 넘어 공부)으로 익힌 것이다. 이는 곧 단순한 수준을 넘어서니 학문의 방향을 똑바로 잡고 체계적으로

로 공부할 것을 도모하면서 그 심경과 각오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부인들이라도 큰 실천과 업적이 있으며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신(남편 윤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로부터 남녀는 평등하다.)

이것도 여권론자(女權論者)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시대 가장 엄중하게 남녀차별이 심하던 시기에 정일당이 한말이다. 수년전 광화문 ‘한국성씨총연합’ 편집실에서 편집실장인 본 기자에게 대들면서 인터뷰하던 닷페인스의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깜짝 놀랄 이야기이다. 진정한 여권론의 원조격이니 말이다. 이런 정일당의 말에 남편은 맞다고 했을것이라 믿는다. 그의 스승은 바로 부인 이었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농고재 권열 추향제 봉행



권영준 이사관 송덕비



농고재(聾瞽齋) 권열(權悅, 추밀공파, 19세) 선조와 이조좌랑 권포(權胞, 20세), 선산부사 권조(權調, 21세)의 추향제가 전북 정읍시 정읍면 도탄리 선영에서 권태정(33세), 권용희(33세), 권인식(35세), 권행완(36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농고재 권열은 양촌 권근의 첫째 아들 충제공(據制公) 권천(權踐, ~1431)의 넷째 아들 충좌위호군(忠佐衛護軍) 권목(權睦)의 아들이다. 농고재는 세자위위사(世子翊衛司) 시직(侍直)으로 나가 세마(洗馬)가 되었다. 세조 2년(1456) 사육신의 상왕 복우 모사가 실패로 끝나자 관직을 버리고 경기도 광주에 은거해 있다. 임금이 거듭 불러 나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전라북도 정읍 고부 도탄리로 낙향하여 보한재(保閑齋)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동생 귀례정(歸來亭) 신말주(申末舟, 1429~1503)와 교유하며 산수와 시주(詩酒)를 벗하고 살았다. 그래서 일까 농고재의 절의를 상징이라도 하는 듯이 묘역 바로 옆에는 후손들이 심지도 않았는데 대나무가 묘소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었다.

정읍시 고향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권태정씨와 권용희씨는 선영에 얹힌 두 가지 일화를 이야기해 주었다. 고부에는 유명한 토호세력으로 고부은씨들이 아전을 하면서 득세를 하고 있었는데 동학혁

도청 국장과 장수군수를 역임한 권중영 국장이 있었고, 권태정씨의 아버지로 철도청에서 이사관으로 퇴직한 후 2005년 4월 세상을 태계하자 그해 10월 후배 직원들이 송덕비를 세워준 권영준(權永準) 이사관이 있었는데, 그중 육사(38기)를 나와 일본대사관 무관과 국방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고 예비역 소장으로 예편한 권태환씨를 집안에서 가장 크게 기대했다고 한다. 아직도 후손들은 더 고위직의 정승판서가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 자못 기대하는 눈치였다.

농고재 후손들은 농고재의 아들 이조좌랑 포(胞)

가 아들 셋을 두었는데 해(該), 조(調), 평(評)이다.

정읍에는 주로 둘째 아들 선산부사 조(調)의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고, 셋째 아들 대사간 평(評)의 후손들은 이들 현(現, 1543-1633)이 현릉침봉을 거쳐 사헌부감찰을 역임하고 통훈대부로서 외직인 남평현감으로 나가면서 전라남도 나주에 세거하기 시작했다. 대사간 평의 묘소는 10여 년 전에 정읍에서 나주로 이장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대전종친회 뿌리공원 안동권씨 조형물 청소



대전종친회(회장 권용기)는 뿌리공원에 설치된 안동권씨 조형물에 푸른 이끼가 끼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11월 4일 자체적으로 청소업체를 불러 상당한 비용을 들여 깨끗이 청소했다. 안동권씨 조형물에는 안동권씨의 유래 등이 기록되어 있는 안

동권씨의 상징물이다. 뿌리공원에서는 매년 전국 각 성씨들이 참여하여 효문화 뿌리축제를 벌이고 있다. 이번에도 대전종친회는 안동권씨를 대표하여 대회에 참가하여 입장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안동권씨 좌윤공파의 대서사시 ‘좌윤공 사람들’ 출간

권오신 좌윤공파 회장이 〈좌윤공 사람들〉을 출간했다. 지난 7년간 2백자 원고지 1만 장 분량으로 무려 200만자를 써내려간 안동권씨 좌윤공파 혼조들의 장엄한 대서사시다. 특히 좌윤공파 후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보서(寶書)로 남기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저리도록 더 치열하게 쓴 흔적이 서책 곳곳에 묻어 있다. 그래서 현존하는 자료는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일성록(日省錄), 임란의병사(壬亂義兵史), 문과방목(文科榜目) 등 고증에 필요한 공식적인 사료와 파시조(派始祖)이신 고려 성균 생원 좌윤공을 비롯 고려은 청광록(大副군감 추밀원 부사, 고려의 최고 관직인 문하시중공, 20살 급제로 문명을 펼친 고려의 절신 판사공(判事公), 조선 현종 때 장원급제로 어사화를 쓰신 사간공(司諫公), 그리고 조선의 수많은 문벌 가운데 한 종종에서 처음으로 나온 11명의 임관의 병장 등 1000분이 넘는 혼조들의 행장이 기록된 서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여 눈이 침침해져도 소매를 걷어 올리고 공경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편년체기년제로 한줄 한줄 써내려갔다고 술회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다투며 한국기자상과 한국언론상을 수상한 경륜 있는 언론사 기자 출신답게 인간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서사적 패트를 포착하는 놀랄만한 예사롭지 않다. 그럼에도 저자는 “시인이었던 부친의 글 읽는 소리에 잠을 깨고 글 쓰는 것을 태어난 숙명으로 여겼지만” “현조의 학문과 행장을 보고 저의 부족을 참담하게 느끼면서 200자 원고지 1만 장”(발간사)을 썼다고 겸손해 한다.

책을 펼치면 안동 천등산 시조 묘소 사진을 시작으로 낭중공 단초를 비롯해 신라 종이에 그려진 시조 태사공의 영정과 50자 시(詩)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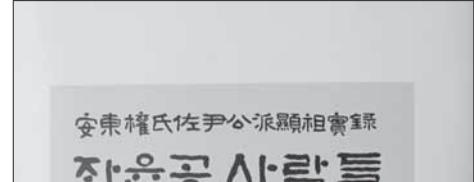
고려 초 태사공 서세(逝世) 전 제작된 영정으로 1980년에 찍은 유일한 사진이다. 또한 능동재사와 안동재사, 운곡서원의 가을과 겨울 전경, 혼조들의 문과급제 고지, 문집, 실기, 시집, 가첩 등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사진들이 책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책의 구성은 제1장은 태사공과 9세까지, 제2장은 좌윤공 후손들과 문종을 소개하고 있고, 제3장은 저자가 안동권씨 종보와 경북 매일신문에 기고했던 칼럼 등을 실었다.

저자는 ‘사성(賜姓) 천년 미래천년 안동권문을 여신 시조 태사공으로’ 문을 활짝 연다. 저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시조 태사공께서 사성을 받은 후 서라벌에 남은 귀족들은 고려파와 반대파로 갈려 100년 넘게 물고 끊는 집안싸움을 벌였고, 이렇다보니 태사공 시조는 고려 관직에 적극적이지 않으셨던 것 같다고 말한다.

그 증자는 당시의 음서제도로 권리 세습이 유행했으나 유독 안동권문의 혼조들, 특히 2세, 3세에서도 세습에 따른 벼슬자리를 이은 기록이 없음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특히 낭중공은 태사공의 세습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처형인 청도 공암촌에서 여생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결코 우연치 않은 일이라는 점이다. 매우 설득력 있는 정치적 배경과 상황 설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더욱 놀라운 점은 안동권문의 그여느 서책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시조의 배위(配位)에서부터 9세의 배위까지 혼조모(先祖母)의 가문과 성씨와 누구의 딸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시조의 배위이자 천년 권문을 여신 혼조모(先祖母)는 밀성박씨이고 밀성은 밀양의 옛 이름이므로 밀성박씨는 밀양박씨이다. 혼조모의 부친은 고려 태조로부터 봉호를 받은 좌승밀성군(左丞密城君) 침(枕)이다. 2세 낭중공의 배위는 공암촌주(孔岩村主) 양천허씨(陽川許氏, 일명 청도허씨) 선문(宣門)의 딸님이시다. 3세 혼조(재책)의 배위는 고려 목종 6년(1003) 낭중에 오르신 당성홍씨(唐城洪氏)의 딸님이시며 세 아들을 둘으로써 시조 이후 독종손 시대를 끊었다. 4세 혼조(균한均漢)의 배위는 고려 경종 1년(1035) 대상에 오른 이령남씨(宜寧南氏) 광홍(光洪)의 딸님이시다. 5세 혼조(자평子彭)의 배위는 고려 문종 24년(1070) 대효군에 오른 안동장씨(安東張氏) 식(寔)의 딸님이시다. 6세 혼조(선개先蓋)의 배위는 순흥안씨(順興安氏) 덕흥부원군 수(秀)의 딸님이시다. 7세 혼조(殷廉)의 배위는 고려 인종 9년(1131)에 소감(少監, 고려의 4품 관직)에 오른 문화유씨(閔華友)의 딸님이시다. 8세 혼조(이여利卿)의 배위는 고려 중종 24년(1070) 대효군에 오른 안동장씨(安東張氏) 식(寔)의 딸님이시다. 9세 혼조(자평子彭)의 배위는 순흥안씨(順興安氏) 덕흥부원군 수(秀)의 딸님이시다.

정경부인(貞敬夫人) 인양김씨(彦陽金氏)도 같은 생각이어서 새벽녘 처갓집 가족들이 잠든 사이 가마솥에 간힌 열 마리나 되는 자라(별瓢)를 새 신부의 흉의(紅衣)에 담아 동구 밖 강가에 나가 놓아 주었다. 잔잔한 강물로 헤엄치는 열 마리의 자라 등이 달빛을 받아 무척이나 반짝였다고 한다.



安東權氏佐尹公派顥祖實錄

좌윤공 사람들

附錄 : 韓國의 姓氏



여행민씨 혼조모가 안동권씨 득성 아래로 문호를 크게 넓히신 분이다. 2세 혼조로부터 독자로 출발했던 우리 안동권씨는 가손(家孫) 번성이 최대 염원이었을 것인데, 8세 혼조 대에서 15개파가 성립될 수 있도록 일곱 아들을 두었다.

참으로 놀랄만한 역사적 사실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낭중공 배위가 양천허씨라는 사실 외에 시조를 비롯해 3세부터 9세까지의 배위에 대해서 저자는 “시인이었던 부친의 글 읽는 소리에 잠을 깨고 글 쓰는 것을 태어난 숙명으로 여겼지만” “현조의 학문과 행장을 보고 저의 부족을 참담하게 느끼면서 200자 원고지 1만 장”(발간사)을 썼다고 겸손해 한다.

책을 펼치면 안동 천등산 시조 묘소 사진을 시작으로 낭중공 단초를 비롯해 신라 종이에 그려진 시조 태사공의 영정과 50자 시(詩)를 소개한다.

고려 초 태사공 서세(逝世) 전 제작된 영정으로 1980년에 찍은 유일한 사진이다. 또한 능동재사와 안동재사, 운곡서원의 가을과 겨울 전경, 혼조들의 문과급제 고지, 문집, 실기, 시집, 가첩 등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사진들이 책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책의 구성은 제1장은 태사공과 9세까지, 제2장은 좌윤공 후손들과 문종을 소개하고 있고, 제3장은 저자가 안동권씨 종보와 경북 매일신문에 기고했던 칼럼 등을 실었다.

또한 고려에서 벼슬을 하셨던 혼조들의 세거지가 개경이어서 묘소를 찾거나 지석을 발굴, 혼조 조상들의 행장과 학문, 역사적 진실을 찾는 것이 남쪽에 사는 혼조들의 최대의 숙원이어서 통일이 되면 혼조의 지석부터 찾아 옮겨버린 가문의 역사를 찾아 고증하고 싶은 가슴에 서린 한을 낸지시 내비친다.

이외에도 시조 태사공 묘소(安東市 문화유산 124호)를 빠른 시일에 국가 주요 사적지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주장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좌윤공 사람들〉은 좌윤공파 혼조들만 반드시 볼 것이 아니라 안동권문이면 누구나 읽어야 하는 보서(寶書)로서의 필독서이다. 참고해야만 하는 지침서가 아니겠는가. 한림원(翰林院) 권택진(權澤鎮) 박사 역시 “감격, 감격입니다. 우리 종종에 이런 대하설록(大河實錄)을 편찬해 주신 분이 있었으니. 지난 세월은 말할 것 없고 미래 천년을 지킬 혼조들이 꼭 읽어야 할 보서(寶書)”라고 역설한다. 더 나아가 역사책으로서도 그 어느 것 하나 손색이 없는 걸작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좌윤공파는 권오신 회장의 타월한 리더십으로 연원 성역화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 5월 연원재사 중간 준공식과 단소 수갈고유제를 봉행했다. 그 성역화 사업 또한 추진 경과에서부터 묘비에 밀양(密陽) 박용설(朴龍澈) 서예가가 고체로 쓴 사설, 기록으로 글을 짜고 손각 명인 이창용 선생이 한 달간 손각으로 비(碑)의 품위를 높인 사설 등과 비문에 새겨진 내용까지 세세하게 기록한다. 책장을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치밀한 전략과 정성과 노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에서부터 가족을 넘어 국가에 이르기까지 씨줄과 날줄의 역사적 의미망으로 품종히 얹혀있다. 이런 까닭에 천년의 역사를 기록한 〈좌윤공 사람들〉을 간단히 몇 마디로 소개한다는 것은 지면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책표지 앞날개에 적힌 좌윤공파 혼조들은 꼭 새겨두어야 한다는 감동적인 자라 이야기를 전한다.

문정공(文靖